한국장로교회의 개혁신학에 대한 연구[1)]

: 1884년부터 2000년까지를 중심으로

주강식(양산남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소개, 수용,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천착 과정을 살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신학사상과 논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이 무엇이며, 한국에서 개혁주의가 유입되고 논구되는 과정에서 그 방법과 중심인물이 누구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시작했던 1884-1930년까지의 신학은 보수적 복음주의, 또는 보수적 개혁주의였다. 개혁주의가 선명하게 소개된 것은 1930년대 이후였다. 한국교회에 개혁주의 신학의 본격적 유입과 전개 과정에서 박윤선이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통해 영미 개혁주의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신학을 도입, 전개, 확산시키는 일을 했다. 그가 고려신학교, 총신대학, 합동신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한국교회 안에 개혁주의의 전개와 확산을 가져왔다. 그는 강의와 저술, 주석발간을 통해 한국교회에 칼빈주의 신학을 체계화하는데 기여했다.[2)] 그는 일관되게 칼빈주의 신학을

1)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신학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14)를 요약해서 게재한 것임을 밝혀둔다.
2) 이상규, "한국에서의 칼빈 연구", 오정호외 7인 공저, 『칼빈과 한국교회』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276.
3) 이상규, "한국에서의 칼빈 연구", 276-77.

신봉하고 칼빈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3)]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약 130년간의 역사를 살피며 개혁주의 역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1884–1930)

1) 초기 선교 정책과 신학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여러 주장이 대두해 있다.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이 집약된 네비우스 선교정책에는 그들의 신학적 견해가 내포되어 있다. 초기 선교사들의 정책은 성경 연구반 체제의 성경 강조 정책이며, "보수적이며 근본주의적 성경관"을 가졌다.[4)] 곽안련은 1934년 북장로교 선교부 희년 성회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성경중심적인 보수주의 신학 정책이 자유주의적인 것보다 선교의 열매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다.[5)] 이러한 성경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의 신적 권위와 직접 말씀하셨다는 문자적 해석, 영감성, 성경 무오성에 대한 적용이었다. 이런 사고의 바탕에서 네비우스 선교 방법은 엄격한 주일 성수, 성경적 보수주의와 교리주의, 반자유주의의 태도를 심어주었다.[6)]

2) 평양신학교의 신학

평양신학교는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의 초석을 마련했다. 1890년 초가을 서울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서 신학반(theological class)이 모였던 것을 마포삼열이 정규 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1901년 합동공의회의 결정을 거쳐서 평양 그의 사택에서 시작했다. 초기 평양신학교는 신학반 내지는 사경회에서 진일보한 수준이었다. 신학생들 중에서 대학 중퇴나 졸업

4)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4), 153.
5) Charles Al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박용규, 김춘섭 공역,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327–28.
6)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6), 120.

자는 1910년대 이후에 생겼다.[7] 또한 1920년까지 교과 과정은 5년 과정이었으며, 1년에 3개월 수업을 했다. 수업과목도 신학과목이 고루 배치되었으나 성경과목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다.[8]

한국에서 1930년대 이전의 신학은 선교사의 신학을 의미한다. 미국 선교부는 타 선교부보다 보수적이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선교부가 북장로교와 남장로교이다. 마포삼열은 평양신학교 설립부터 1924년까지 교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는 강하게 반대했다. "근대에 있어 흔히 새 신학, 새 복음을 전하려는 자가 누구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 조심하자. 조선 모든 선교사가 다 죽고 다 가고 모든 것을 축소한다 할 찌라도 형제여! 조선 교회 형제여! 40년 전에 전한 그 복음 그대로 전파하자. 나와 한석진 목사와 13도에 전한 그것이 길선주 목사가 평양에서 전한 그 복음, 양전백 씨가 전한 선천에 전한 그 복음을 변경치 말고 그대로 전파하라."[9] 마포삼열은 전천년설을 신봉했고, 무디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그의 신학은 한국에 보수주의적인 신학 입장을 심었다.

곽안련은 1908-1938년까지 31년간 실천신학을 가르쳤다. 특히 그의 51권의 저술, 『신학지남』에 게재한 논문은 한국교회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 그는 성경 무오설과 축자영감설, 역사적 전천년설을 추종했다. 그는 부흥설교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에서 찰스 피니(Charles Finny)가 사용했던 "새로운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 부흥에 대하여 찰스 피니의 알미니안주의적인 사고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짐을 수용했다. 그의 신학은 보수적

7) 1924년 신학교 재학생 120명 중 대졸자, 대학 1년 이상 수학자는 6명, 대부분은 중졸, 성경학원 졸업도 못한 자가 77%에 해당되었다. 김영재, "조치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 교육", 『기독신학저널』 13 (2007년 가을호): 51.
8) 조경현, 『초기한국장로교 신학사상』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1), 214. 1910년 1학년 1학기, 성경은 12시간, 신학은 6시간, 그 밖에 설교학은 4시간이었다.
9)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 대설교전집 출판위원회 편, 『대설교전집』 I (서울: 박문출판사, 1995), 514.
10) 곽안련,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304-5.

이며 복음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이다.

이눌서는 미국 남장로교를 대표하며 구학파 신학적 배경을 가졌다.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성경의 권위를 우선하는 매우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했다.[11] 『신학지남』을 통해서 발표한 다수의 그의 논문에 잘 나타난다. 그 중 "신앙의 원리"라는 논문은 "나이가라 사경회에서 작정훈 신앙의 조목"의 부제를 달았는데, 근본주의 5요점(교리)의 출발점이 되는 14조목을 소개한다.[12] 그는 성경의 축자영감설에 서 있으며 고등비평을 도입하는 근대신학주의는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13] 그의 논문들은 근본주의 5요점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이었다.

1931-1934년까지 평양신학교에서 수학했던 박윤선은 재학시에 "개혁주의란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신학교가 "개혁주의 신학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14]

3)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와 12신조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조직되면서 채택했던 12신조는 인도 장로교회의 신경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 서문에는 장로교신앙의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 · 소요리문답서』 중에서 『소요리문답』만 교회문답으로 채택했다. 12신조는 개혁주의 신앙의 특색을 담고 있으나 이중예정, 문화소명론, 교회론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근본주의적이고 정통주의적이며 보수주의적이며 복음주의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15]

---

11) Morton H. Smith, "The Southern Reformed Tradition," ed., David F. Wells,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97), 200; 김인수, 『레널즈가 한국장로교 선교 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끼친 영향 연구』 (서울: 한들출판사, 2012), 176.

12) 이눌서, "신앙의 원리", 『신학지남』 14 (1922. 1): 12-20.

13) 이눌서, "근대신학주의는 즉 배도하는 일", 『신학지남』 66 (1932. 11): 10. 그는 여기서 근대신학주의를 "최후의 배도하는 일"이라고 했다.

14)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55-56.

15) 이상규,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 『역사신학논총』 창간호 (1999. 11): 398-99.

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조직과 신학적 성격

1912년에 조직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여러 면에 있어서 감리교회와 연합사업을 하고 신학잡지에 있어서도 서로 논문을 게재하거나 광고를 실어주기도 했다. 1905년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는 하나의 '조선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하고자 합의했다. 네 개의 장로교 선교부와 두 개의 감리교 선교부가 "한국복음주의 선교 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 in Korea)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장로교회는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주의와 연대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당시 장로교 선교사들이 엄격한 개혁주의를 추구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16]

1920년대 한국 장로교회 안에 최소한 2명의 자유주의적 견해를 가진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어번 선언(Auburn Affirmation)에 서명했다.[17] 장로교가 가진 신학은 개혁주의적 특성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그 특성의 외연은 기대할 수 없다.[18]

5) 칼빈(주의)에 대한 초기의 논구들

1930년대 초반까지 칼빈주의에 대한 논문이나 소수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1910년 별신학과에서 4년차에 칼빈도리(葛彬道理, Life and Thought of Calvin)가 교수되었다. 최초로 칼빈을 대중에게 알린 것은 1916년 11월 29일부터 1917년 6월 20일까지 시온산인(禔菡山人)이 『기독신보』에 게재한 "갈빈약한전"(葛彬約翰傳), 곧 요한 칼빈의 전기였다. 1920년 『신학지남』에 부두일(富斗一)인 "만국쟝료회련합총회"라는 논문에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장로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923년 『기독신보』에 기독교 위인전을 다루면서 "불란서의 종교개

16) 이상규,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 398.
17) Bruce F. Hunt, "Trials Within and Without," *The Presbyterian Guardian 29* (February 1960): 37.
18) 이상규,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 103.
19) "기독교의 위인전: 불란서의 종교개혁가 쓴 칼빈", 『기독신보』 400 (1923. 8. 8), 1; 401 (1923. 8. 15), 1.

혁가 존 칼빈"을 소개하고 있다.[19] 동년 오천경은『교회역사인물지』를 통해서 요한 칼빈에 대하여 8쪽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다. 1925년 곽안련의『설교학』에서 칼빈이나 칼빈주의 용어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1930년 최상현이『신학세계』에 두 번에 걸쳐 "요한 칼빈의 생애와 사업"에서 루터주의보다 칼빈주의가 더 큰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했다.

1930년 초 이전까지는 칼빈주의에 대한 단편적이고 전기적인 소개는 있었지만 그의 사상에 대하여 확고한 파지(把持)나 전개가 미비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므로 초기 한국교회의 신학을 확고한 칼빈주의적 전통에 서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2. 개혁신학의 적극적 유입(1931-1945)

1) 개혁신학의 출현

장로교회에서 칼빈주의가 소개된 것은 1934년『신학지남』에서 비롯됐다. 남궁혁을 비롯한 7명의 필진들이 논문과 칼빈의 설교를 번역했다.[20] 칼빈 탄생 425주년과 한국장로교 선교 50주년을 맞아 칼빈을 소개하는 특집호를 발간했다. 이눌서는 "칼빈의 신학과 그 감화"와 남궁혁은 "칼빈 신학과 현대 생활"에서 칼빈주의에 대하여 정의했다.[21] 칼빈주의 특색과 정의를 파악하며 그 개념을 광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 칼빈주의 논문이 발표된 것은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밀려들어오고 고등교육에서 현대주의 바람이 분 까닭이다. 장로교 안에서 김영주는 창세기의 모세 저작설을 부인하고 김춘배는 여권 문제에 대하여 주장했다.

---

20) 남궁혁, "칼빈신학과 현대생활", 송창근, "요한 칼빈의 일생", 박형룡, "칼빈의 예정론", 채필근, "칼빈의 교회관과 교회정책", 이눌서, "칼빈 신학과 그 감화", 라부열, "성경주석가로 본 칼빈", 곽안련, "강단의 칼빈", 김재준, "핍박-칼빈의 설교",『신학지남』76 (1934. 7), 2-70.

21) 이눌서는 협의적으로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교리적 체계를, 광의적으로는 바울, 어거스틴, 칼빈의 가르친 교리의 특점과 그것을 지지하는 교리 전반을 의미한다. 남궁혁은 칼빈의 개인 교의, 루터교와 구분되는 반항교회(Protestant Church)에서 공인한 교의 체계, 광의적으로 칼빈의 대사상의 영향을 받은 모든 영역의 일대 표상의 세 가지로 정의했다. 이눌서, "칼빈 신학과 그 감화", 49; 남궁혁, "칼빈 신학과 현대 생활", 2.

초기 평양신학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이 제대로 소개될 수 없었던 것은 학생들의 수준이 미달했고, 한국 학자들이 배출되지 않으므로 신학을 논할 준비가 부족했다.[22] 1935년 장로회총회종교교육부에서 발간한 『종교시보』(宗敎時報)에 강태민은 "요한 갈빈의 생애"에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50년 어간을 성장한 우리 조선기독교사 한 책이 없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거니와 더욱이 우리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잊이 못할 '칼빈'의 전기가 없음도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23]

1936년 김태복이 『칼빈의 생애와 그 사업』이란 책이 칼빈을 다룬 최초의 단행본이었다. 이후에 『게자씨』에 채필근, 박형룡, 함일돈 평양신학교 교수 3명과 평양신학교 출신 김인준, 박윤선, 방지일 3명이 칼빈을 소개하는 논문들을 발표했다.[24] 동년 11월에 김영희가 『신학세계』에 "칼빈의 공헌", 1937년 9월 『신학지남』에 함일돈이 "칼빈주의"를 세 차례 게재했다. 이 논문은 칼빈주의 신학 체계를 처음으로 소개한 논문으로 평가된다.[25] 함일돈은 프린스톤에서 워필드와 메이첸으로부터 배운 변증학을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칼빈주의를 통한 성경적 기독교의 변증에 힘썼다.

동년에 박형룡이 뵈트너의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을 『칼빈주의 예정론』을 번역하므로 칼빈주의를 알리는 중요한 작품이 되었다. 칼빈주의 5대교리, 예정론,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 이후에도 박형룡, 김태묵, 라부열, 박현명, 남궁혁, 정태희 등이 칼빈주의를 소개하는 소수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1934년부터 해방 전까지 논문 23편, 저서 2권이 있다. 1930년대 이전에는 칼빈의 전기적 수준을 넘지 못했다면 그 이후부터 해방되기까지는 진일보하였으나 번역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박윤선은 1936

22) 정성구, "한국교회와 칼빈 연구", 『신학지남』 223 (1990, 3): 17-18.
23) 강태민, "요한 갈빈의 생애(1)", 『종교시보』 4/4 (1935. 4): 15.
24) 채필근, "칼빈의 일생", 박형룡, "칼빈의 예정론", 함일돈, "칼빈의 주요원리들", 김인준, "칼빈의 신학개관", 박윤선, "칼빈의 기도론의 촬요수조", 방지일, "칼빈의 성경관", 『게자씨』 60 (1936. 8): 1-22.
25) 이상규, 『한국교회역사와 신학』 (서울: 생명의양식, 2007), 361.

년 미국유학에서 귀국하여 신정통주의 신학을 비평하는 논문을 썼다. 그가 개혁주의 신학을 인식하면서 설교한 것이 1937년 이후부터였다.[26] 사실상 한국에서의 개혁주의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34년이다.

2) 개혁신학의 근본주의화

1910년 후반부터 한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일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퍼뜨린 곳은 감리교 협성신학교이다.[27] 1916년『신학세계』를 통하여 한국 학자들에 의해 고등비평, 모세의 창세기 저작설 부인, 편집설과 부분 영감설이 등장했다.[28] 이 신학지는 장로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1930년대 이전 장로교 안에서 김장호 목사나 캐나다선교부의 관할 하에 있던 함경도에서 부분적, 지역적 진보적 신학운동이 있었다. 1930년대 중반 모세저작 부인문제, 여권문제, 아빙돈『단권성경주석』문제는 정통 개혁주의를 더욱 보수적으로 만들었다. 김재준이『신학지남』에 발표한 8편의 논문은 여기에 가세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들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도미하여 공부하고 돌아온 자들이 대부분이다. 마포삼열, 길선주, 박형룡과 신학적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총회 내에서의 신학적 기류는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강경일변도로 변했다. 자유주의적 견해를 내거나 아빙돈 단권주석의 번역에 참여했던 자들이 유감을 표시하므로 일단락은 되었지만 완결은 아니었다. 일제가 한국교회를 탄압하자 자유주의자들은 일제와 야합하기 시작했다.

---

26) 박윤선, "나의 신학과 설교",『신학정론』4/1 (1986. 5): 6.

27) 간하배는 한국 자유주의의 중요한 근거로 감리교 선교회와 교회, 캐나다 선교회, 그리고 일본 자유주의를 들고 있다. 1893년에 시작한 교계예양(선교지 분할협정)으로 인하여 평신도들이 장로교 지역에서 감리교지역으로 이동하므로 자유주의 신학적 영향을 받게 됐다. 감리교회는 한국 선교초기부터 자유주의에 빚을 지고 있다. Harvie M. Conn, "Korean Theology-Where it has been? Where is it coming?"『신학지남』157 (1972. 6): 53-54; "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n Historical Outline Part Ⅱ," *Westminster theologrcal journal* 29/2 (May, 1967), 145-46; 박용규,『한국장로교사상사』, 162-67.

28) 유동식,『한국신학의 광맥: 한국신학사상사 서설』(서울: 전망사, 1984), 69.

3) 개혁신학과 신사참배

1930년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일제는 더욱 강경하게 한국 교회에 신사참배를 요구했다. 조선 통치 초기 신사의 비종교화를 주장하여 자발적 신사참배를 요구했으나 1930년대 후기부터는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 국기 게양, 동방요배,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10월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제정했다. 1938년 제27차 총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을 때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로 가결하도록 만들었다. 총회장 홍택기는 신사참배의 가부(可否)에서 가(可)만 물었을 때 두 명이 "예"라고 한 것을 듣고 통과시켰다. 부를 묻지 않으므로 불법을 행』했다. 평양신학교를 비롯한 학교기관에도 신사참배를 요구하자 재한 선교부에서는 학교를 폐쇄하는 쪽으로 노선을 택했다.

일제는 이것을 시점으로 더욱 강경한 요구를 했다. 궁성요배, 사도신경 중 교리 삭제, 찬송가 개편으로 이어졌다. 1943년에는 주일 오후, 야간집회, 수요일 밤 기도회도 금지시켰다. 신앙의 자유를 유린하고 교회를 일제의 하속으로 만들었다.

일제의 정책에 순응적이었던 자유주의자들은 1940년 조선신학교를 설립함으로 그들의 활약의 기회로 삼았다. 조선신학교는 신사참배 찬성자들과 일본에서 교육받은 한국인 학자들의 집결지가 되었다.[29]

신사참배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신학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신사참배는 사소한 문제의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본 문제와 관계되는 것으로 유일신론과 다신론의 대결이었다.[30] 신사참배 반대자들의 신학적 배경은 보수적이며 개혁주의적인 신앙이었다.[31] 장로교인이 다수였고, 나머지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천주교 등에서도 있었다. 한국에서 개혁주의가 막 거론되던 시기에 혹독한 시련은 "한국 교회의 보수주

29)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서울: 총회교육부, 1956), 192-93; Hunt, "Trials Within and Without," 38.
30) George Thompson Brown, *Mission to Korea*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62), 153.
31) 김남식, 간하배 공저, 『한국장로교회 신학사상사』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7), 498.

의적 신학의 퇴조를 초래"했다.[32] 동시에 이것은 주남선과 한상동이 옥중에서 깨달은 바와 같이 "한국교회가…완전히 신본주의에 입각한 신학의 부족함"에 있었다.[33] 신사참배는 평양신학교의 폐교와『신학지남』의 폐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폐쇄로 이어져 개혁주의의 발전에 큰 시련을 주었다.

3. 고려신학교와 개혁신학(1945–1960)

1) 고려신학교와 박윤선

고려신학교는 1946년 9월 20일 부산 일신여학교 교실 하나를 빌려서 개교했다. 개교는 주남선과 한상동 목사가 옥중에서 계획했고, 1946년 6월에 있었던 진해 신학강좌가 그 뿌리가 되었다. 그 동기는 동년 경기 노회가 운영하는 조선신학교의 총회직영 인준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고려신학교는 총회의 자유주의 신학화를 반대하고 개혁주의 신학을 전개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됐다.[34] 1946년 "고려신학교의 설립취지서"에는 "성경의 독자적 신임성을 믿는 개혁교 신학의 원칙에 확립하야 밝히도 정왜(正歪)와 시비를 단(斷)하는 칼빈주의 신학을 수립코자"라고 밝히고 있다.[35] 더불어 성경중심과 문화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허순길은 고려파 신학이 곧 개혁주의 신학이며,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한다. 고려신학교에서 송상석 목사를 만주 봉천에 보내어 박형룡 박사를 모시고 온데는 바로 이 같은 강한 신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박형룡은 한상동과의 신학교에 대한 이견으로 서울로 가버리자 그 자리에 박윤선이 역할을 했다.

박윤선은 1946년 진해에서 신학강좌부터 고려신학교와 연관을 맺었다. 박윤선은 고려신학교가 근본주의, 정통주의에서 벗어나 일반 은총에까지

32) 이상규,『한국교회역사와 신학』, 215.
33) 박손혁, "신학10년 발전사",『파수군』55 (1956. 9): 19.
34) 이상규,『한상동과 그의 시대』(서울: SFC출판부, 2006), 281.
35) "고려신학교 설립 취지서", 이상규,『한상동과 그의 시대』, 30에서 재인용.

시야를 넓힌 개혁주의를 가르쳤다.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박윤선은 1952년 칼빈주의 세계관, 신자와 문화 등 일련의 주제들을 다루었다. 박윤선은 고려신학교가 개교하던 1946년부터 1960년까지 고려신학교에서 가르쳤다.

2) 박윤선과 개혁신학

박윤선은 고려신학교 제2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성경 주석가"로서 한국교회 강단과 설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36] 오병세는 박윤선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그의 성경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학은 고려신학의 신학적 토대가 됐으며, '고려신학'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그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37] 더 나아가서 그는 "한국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정초를 놓은 인물"이다.[38] 그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수학했다. 그는 평양신학교에서는 개혁주의에 대하여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고 술회하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칼빈주의를 자각있게 붙들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개혁주의를 '성경주의'로 이해했다.[40] 그의 성경관은 성경무오설, 계시의존사색을 가지며 성경해석에 있어서는 문자적 해석과 영적 해석을 겸병했다.

그의 관심은 성경주석으로 나타났다. 고려신학교에 재직하면서 25권을 집필했다.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주석 집필의 목적이 실천적, 내지는 목회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 준다.[41]

성경주석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인용하고 고등비평가, 신정통주

36) 이상규, 『한국교회역사와 신학』, 229-30.
37) 오병세, "박윤선 신학이 한국 주경신학에 미친 영향", 합동신학교출판부 편,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수원: 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326.
38)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284.
39)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69.
40)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79.
41) 이상규, 『한국교회역사와 신학』, 239, 241.

의자들의 글은 비판했다. 일본을 비롯한 동양권의 신학자 핫지, 워필드, 메이첸, 그린, 영, 메튜 헨리 등 미국 신학자들, 잔 메이어, 델리취 등 독일 신학자들, 카이퍼, 바빙크, 케할드 보스, 리덜보스 등 화란 신학자들의 글을 인용했다. 그는 개혁주의 신학을 석명하고 구체화했으며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신정통주의,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성경의 절대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진정한 개혁신학자였다.[42]

그의 개혁주의 사상은『파수군』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 요약과 200개가 넘는 소논문들을 썼다. 1953-1958년의 5년간 156편의 글을 썼는데, 이때가 고려파로서 가장 중요한 교단의 형성기였다.[43]『파수군』은 한국교회 혼란기에 교회의 참된 방향을 제시했다.[44] 이 잡지는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칼빈주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45] 박윤선이 1949-1960년까지 칼빈주의에 대해 쓴 논문은 총 25편이다.

또 그는 '진리운동'으로 소책자들을 간행했다. 1960년『대한예수교장로회는 어디로 가나?』라는 책자를 통해서 신사참배 문제와 신학 문제, 교회정치 문제를 언급했다. 칼빈주의 신학이 아닌 이신학(異神學)으로 흘러가는 것을 비판했다. 이신학은 김재준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가르킨다. 박윤선은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만이 전 성경의 통합 체계적 이해를 가능케 하며 따라서 기독교의 진리를 성경적으로 균형있고 모순 없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유일의 신학"이라고 주장했다.[46]

그의 칼빈주의에 대한 열의는 1956년 교단의 이름을 '고려'에서 '개혁파'로 변경하고자 했던 점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점은 1963년 서울에서 '개혁신학교'를 연 점, 1981년 합동신학교를 중심으로 총회를 조직할 때 '개혁파'란 명칭을 사용한 데서도 확인된다.

---

42) 이상규,『한국교회역사와 신학』, 237.
43) 서영일,『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239.
44) 허순길, "『파수군』 영인본을 펴내게 됨을 축하하면서",『파수군』 영인본 (서울: 도서출판 목양, 1990).
45) 장희종, "초기『파수군』을 통해서 본 우리 교회의 정신",『장로교회와 역사』1 (2008): 44.
46) 박윤선, "우리의 주장",『파수군』7 (1951. 7): 5.

박윤선은 주일성수 문제로 인하여 고신교단을 부득이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고신교회를 떠남은 그의 봉사와 개혁주의의 가르침이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 개혁주의의 확산을 가져왔다.

3) 개혁주의 신행협회 조직

개혁주의신행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Reformed Faith and Action)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신학자들과 신앙 동지들이 개혁주의 신앙과 행위를 강화하고 발전 보급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47] 이 단체가 시작된 것은 1953년 7월 불란서 몬트빌(Montpellier)에서 "개혁주의 신앙에 따른 생활을 강조"하면서 시작됐으며 이 회명이 '국제 개혁주의신행협회'(이하 ISRFA)였다. 개혁주의신행협회의 활동영역은 칼빈주의 신학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 더 나아가서 출판을 통한 문서 보급, 학술 강연회까지 포함한다.

한국에서 개혁주의신행협회가 태동한 것은 1957년 1월 7일이다. 박윤선, 김진홍, 이상근 등 신학자들과 서아도, 하도례 등 선교사들이 모여서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The Korea Society for Reformed Faith and Action, 이하 KSRFA)를 조직했다. 초대회장은 박윤선, 서기는 하도례였다. 이들은 모두 고려신학교와 관계된 자들이다. 고려신학교가 지향하는 목표와 KSRFA가 지향하는 목적이 같다. 하도례는 설립 당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박윤선 박사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 유학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국제개혁주의신행협회 지부를 한국에 조직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했다. 내가 회상할 때, 그 협회에 대한 다른 소개도 없었고, 손에 쥔 문서도 없었다.

첫 번째 모임이 이 방법에서 찾아왔다. 1957년 1월 7일에 세 명의 한국인 교수와

47) 개혁주의신행협회30년사 편찬위원회 편, 『개혁주의신행협회 30년사: 1957-1986』(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7), 9.

두 명의 선교사가 부산에서 만났다. 그들은 박윤선, 김진홍, 이근삼 목사와 스푸너와 데오도르 하드(Theodore Hard, 하도례) 선교사였다. 그들은 그 협회의 현재 이름에 동의했고 박 목사는 회장, 김 목사는 부회장, 그리고 하드는 서기로서 선출됐다.[48]

아무런 조건이나 준비도 없이 박윤선의 주도하에 KSRFA가 성립됐다. KSRFA과 ISRFA의 목적은 동일하다. KSRFA의 교리적 기초는 다음과 같다.

1) 신구약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는다.
2) 한국어로 번역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을 성경과 조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49]

KSRFA의 사업은 "개혁주의 사상의 연구와 문서의 출판 및 보급, 학술세미나 및 수양회 개최, 장학금 지급, 개혁주의 신앙과 행위를 증진시키는 도서관을 설립하는 일과 확장하는 일에 기여"이다.[50]

KSRFA는 박윤선 박사의 개혁주의에 대한 관심과 한국교회에 확산을 위한 열성으로 시작됐다. 이 점은 이상규가 지적하는 바처럼 "한국에서의 칼빈주의 문화운동에 대한 그의 일념을 반영"하고 있다.[51] 초기에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한국 장로교회의 석학들이 참여했다. 제2대 회장 오병세가 오랜 기간 봉사하므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52] 그는 성경신학자로 그의 신학사상은 철저한 개혁주의의 신학이요, 순전한 칼빈

48) Theodore Hard, *A Historical Sketch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Reformed Faith and Action* (Dec. 18, 1967), 오병세, 『교회 교육 신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9), 156-57에서 재인용.
49) 개혁주의신행협회30년사 편찬위원회 편, 『개혁주의신행협회 30년사: 1957-1986』, 15-16.
50) 개혁주의신행협회30년사 편찬위원회 편, 『개혁주의신행협회 30년사: 1957-1986』, 174.
51) 이상규, 『한국교회역사와 신학』, 365.
52) 1963년 9월부터 1년간, 1976-1994년까지 18년간, 총 19년을 KSRFA 대표자로 봉사했다. 최석진, "개혁주의신행협회", 오병세목사성역50주년기념문집간행위원회 편, 『새벽이슬같은 은총의 날들』 (부산: 오병세목사성역50주년기념문집간행위원회, 2001), 241.

주의 신학이다.[53]

KSRFA가 개혁주의 확산에 상당한 촉진제가 됐다. 초창기 번역 사업을 위주로 했으나 1980년 이후 직접 신학 교재를 만들어 신학생들을 교육한 것은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실천하게 하는데 기여했다. 또 직접 신학 교재를 간행하므로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신학분야별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개혁주의 파급 효과가 있다. KSRFA는 박윤선이 ISRFA 모임에 참석하고 난 뒤에 결성이 이루어졌다. 박윤선은 개혁주의 문서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임의 산파역을 했다.

4. 총신대학과 개혁신학(1961–1980)

1) 총신대학과 개혁신학

고려신학교를 떠나온 박형룡은 서울에 와서 1948년 장로회신학교를 개교했다. 이 학교는 평양신학교의 신학 전통과 신앙을 계승했다. 조선신학교와 함께 두 개의 총회직영 신학교 처리문제에 부딪혀서 양교의 직영을 폐지하고 1952년 대구에서 총회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1953년 서울로 이전하였고 박형룡은 동년 9월 제6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1954년 2월 『신학지남』을 속간했으며, 이것은 전 평양신학교의 신학적 전통을 답습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54] 또 신학의 지남침이 칼빈주의 정통신학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박형룡은 3천만 환 사건에 연루되므로 총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쳤다. 총회의 WCC 가입 문제와 맞물렸으며 경기노회의 총대 파송문제는 대한예

53) 전광식, "오병세의 신학", 『새벽이슬같은 은총의 날들』, 113, 115. 전광식은 오병세의 신학의 특징을 '계시의 신학', '구속사의 신학', '은혜의 신학', '하나님 나라의 신학', '교회의 신학', '코람데오(Coram Deo, 神前意識)의 신학'로 규정하면서 결론적으로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한 신학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오병세 교수를 "고신신학을 대표하는 고신의 신학자이며, 한국교회의 성경신학을 대표하는 한국의 성경신학자이고, 또 세계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자이다. 그리고 그는 이 시대 한국교회의 진정한 교부(敎父)이다"라고 극찬했다.

54) 박형룡, "속간사", 『신학지남』 114 (1954. 2): 1.

55) 김광수, 안광국 공편, 『장로회신학대학 70년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71), 146.

수교장로회 총회의 역사적 분열인 비극으로 야기되었다.[55] 1959년 총회는 박형룡을 중심으로 하는 반(反) 에큐메니칼측(승동측)과 한경직을 중심한 에큐메니칼측(연동측)으로 양분되었다.

1960년 초 반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고신교단의 영입문제가 헌의안을 정기총회에 올렸다. 이 결실은 동년 12월 13일 승동교회에서 열린 제45회 계속총회에서 맺어졌다.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12신조"로 하며, 신학은 "칼빈주의 개혁신학에 의한 합동"임을 천명했다.[56] 비성경적인 단일교회 운동을 반대하고 WCC 노선의 에큐메니칼 운동 반대결의를 재확인했다. 1951년 제36회 총회가 경남 법통노회 제51회 노회에 대한 결의와 총회장의 포고문을 취소했다. 이 총회는 신학과 신앙이 같아 합동했음을 강조했다. 허순길은 "개혁주의 교회생활의 원리인 개교회의 권이 무시된 교권 중심의 합동추진"이었다고 비판했다.[57]

고신교단은 합동이후 노회명칭문제와 신학교 단일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인하여 환원하게 된다. 1962년 10월말 고신측은 환원을 선언한 후 총회와 고려신학교는 복귀하고 말았다. 고려신학교의 복구 방법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홍반식, 이근삼, 오병세가 성명서를 통해서 시인했다.[58] 총회 환원의 이유를 허순길은 강도사 고시 불허 문제로 보았으나 합동측은 고신측 출신의 소외에 대한 불만으로 보았다.

고신교단이 환원했지만 남은 교회가 145개였다. 박윤선은 1962년 11월 22일 총회신학교로부터 교수 제의를 받고 수락했다.[59] 그는 개혁신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은 총회신학교로 편입했다.[60]

---

56) 김요나, 『총신 90년사』 (서울: 도서출판 양문, 1991), 391.
57)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02), 442.
58)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장로교사(고신): 1988』 (부산: 고신출판사, 1988), 290-91; 총신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총신대학교100년사』 제1권 (서울: 총신대학교, 2003), 627.
59) "교계소식", 『파수군』 125 (1962. 12): 69.
60) 김영재, 『박윤선: 경건과 쇄신을 추구한 개혁신학자』 (파주: 살림출판사, 2007), 155.

박형룡은 한국교회에 신학적 기초를 다진 이였고 칼빈주의적 벌코프의 조직 신학의 기초 위에 구미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완하여 "꽃다발 신학"을 전수했다.[61] 1972년 2월 김희보 박사가 제2대 학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학교의 신학교육의 이념과 노선은 언제나 분명해 왔습니다. 그것은 곧 전통적인 칼빈주의 노선입니다. 앞으로의 이 노선은 어떠한 변란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요, 또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고 강변했다.[62] 고려신학교가 초창기에 '교육의 노선'으로서 칼빈주의 신학을 천명한 것보다 많이 늦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합동총회는 분열의 내홍을 겪는다. 분열의 중심 주제는 총신의 자유주의화(좌경화)와 교권주의였다. 이런 와중에 1979년 2월 박윤선 박사가 제3대 총신 대학원장에 취임했다. 김희보 학장이 사퇴하자 박윤선은 총학장 직무 대리에 임명됐다. 그러나 그해 7월 8일 사임의사를 표시하고 도미했다. 이듬해 9월 이사회의 파격적인 발탁으로 정성구 박사가 학장이 됐다.[63]

총회신학교는 1960년 장로회신학교와의 분열, 1980년 합동신학교와의 분열을 겪고 난 후 각성하게 된 것은 총회신학교의 신학적 정체성 재확인이었다.

박윤선은 1963년 3월부터 총회신학교에서 교수를 시작하여 1980년까지 13년간 봉직했다. 박윤선의 고려신학교와 고신교회에서의 이탈은 개혁주의의 확산의 계기가 됐다. 이상규는 이 점에 대해 "고신의 신학자이자 개혁주의 신학자 박윤선이 고신을 떠난 이상, 개혁주의 신학은 고신의 한계를 넘어갔고 고신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고 했다.[64] 김영재도 박윤선의 고신 이탈로 한국의 칼빈주의 전통을 합동측이 계승하게 됐다고

61) 박형룡, "박형룡박사 회고록", 133; 박형룡, 『박형룡박사저작전집: 변증학』 제11권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서문.
62) 김요나, 『총신 90년사』, 454-55.
63) 정성구, 『박형룡 · 박윤선』 (대구: 도서출판 한빛, 2006), 13.
64)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137.
65) 양낙홍,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561. 각주 41번의 내용을 인용했다.

평가했다.[65]

당시 총회신학교의 신학적 성향에 대하여 서영일은 "여러 가지 보수적이기는 하나 칼빈주의적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총신이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확신도 가지지 아니했다."고 평했다.[66] 박용규도 그 당시 큰 교세를 가진 합동교단과 총회신학교가 "보수주의 혹은 정통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다소 선명하지 못했던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박윤선의 강의『신학지남』기고, 성경 주석, 강연을 통해 총신의 신학적 정체성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총신이 더 한층 개혁주의를 선명하게 표방하기 시작한 것은 박윤선이 총신 교수로 부임한 이후 나타난 뚜렷한 특징이었다."고 평했다.[67]

합동측과 총회신학교가 개혁주의가 선명하지 못했던 점을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53년 총회 장로회신학교가 세워지고 난 후부터 1962년까지 개혁주의에 대한 논문이 소수에 불과했다.[68] 둘째로, 신학적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1950년 브루너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형룡은 그를 신학교 강단에 세웠다. 셋째로, 비윤리적 문제이다. 학생들의 부정행위, 학습에 대한 불성실 등이다.

박윤선은 총신에서의 교수기간 중 개혁주의 신학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 "나의 신학 교수에 있어서 언제나 불타는 가슴으로 학생들에게 주고자 한 것은 칼빈주의 신학이었다. 칼빈주의 신학이야말로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말씀의 신학이기 때문이다."[69]

그는 1960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토착화 신학'에 대해 비판했다. 1970년 6월 초 NAE 아시아 신학자 아디알(Saphir Philip Athyal) 박사가 서울에 내한하여 강연회를 열자 "토착화 신학은 가능한가?"를 써서 총

66) 서영일,『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96-97.
67) 박용규, "한국교회와 정암 박윤선 박사의 역사적 의의",『죽산 박형룡과 정암 박윤선: 제17회 정암신학강좌』(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5), 179; 김영재,『박윤선: 경건과 쇄신을 추구한 개혁신학자』, 156.
68) 총회신학교와 합동측과 관련한 신학 잡지에 발표된 개혁주의 관련 논문은 1953-1962년의 10년 동안 총 13편이다.
69)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9)",『크리스챤신문』945 (1980. 5. 17), 2.

신대학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그는 토착화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사상을 혼란케 하며 교인의 신앙을 동요케 하는 자들로 보았다.

박윤선의 개혁주의에 대한 열망은 강의와 더불어 성경 주석의 완성으로 나타났다. 1979년 10월『에스라 · 느헤미야 · 에스더 주석』을 완성하여 신구약 주석 20권을 완간했다. 신구약성경주석 20권은 개혁주의 신학에 가장 뿌리를 깊이 내린 주석서이다.[70] 그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며 웨스트민스터신학교는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신학과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친 주석이 나온 것은 교단을 떠나서 한국 장로교회를 위하여 크나큰 유익을 끼쳤다고 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총회신학교의 총체적인 부정과 부패로 인하여 부득이 신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2) 한국칼빈신학연구회의 조직과 개혁신학

한국에서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은 박윤선과 같은 한 학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단계에 들어섰다. 그런 사건이 바로 한국칼빈신학연구회의 결성이다. 이 연구회는 1963년 12월 10일 대한기독교서회 회의실에서 51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 시 회의록에 당시 한국교회의 신학적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 "장로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 칼빈의 신학이 별로 소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적 근거를 칼빈의 신학에 둔다고 하는 한국 장로교회내의 대다수 목사들은 칼빈주의와 칼빈 신학을 혼동하고 있다…" 이런 견해는 한국칼빈신학연구원이 태동 원인이 됐다. 초대회장 한경직, 총무겸 서기 이종성이었으며, 회계 정세빈, 부회계 정석복 그리고 3개의 부서가 있었는데, 연구부, 출판부, 서무부였다.[71] 이 모임은 이종성의 주도하에 움직였고,[72] 통합측 인사들에

70) 채기은, "성경주석 완간을 축하함", 『기독신보』 332 (1979. 10 29), 2.
71) 박경수, "한국칼빈학회 약사",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 신학 개요』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317. 연구부에 한철하(부장), 김정준, 전경연, 한태동, 도양술, 이영헌, 지동식, 출판부에 안광국(부장), 김관석, 성갑식, 정하은, 정석복, 정세빈, 서무부에 윤인구(부장), 마삼락, 강신명, 유호준, 이영찬, 이종성이었다.

의해 주도된 단체이다.

이 단체의 활약은 1964년 영락교회에서 4일간 칼빈사상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때 매일 600명 이상 참여했다. 이듬해 강연회에서 발표됐던 논문들을 편집하여『칼빈 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을 출간했다. 1985년에 한국칼빈학회로 개명했다.

3) 개혁신학의 신학연구

1960-1980년까지 신학잡지들이 더 다양하게 나왔다. 고신교회는 새로운 학술지『개혁주의』를 창간했다.『신학지남』은 합동교회가 안정되므로 활성화가 되어 개혁주의에 대한 논문들이 게재됐다.『기독교사상』,『로고스』,『교회와 신학』,『고신대 논문집』,『미스바』,『신학연구』와 각 대학원에서 논문들, 그리고『크리스챤신문』,『기독공보』,『기독신보』,『기독교보』등과 같은 신문에서 칼빈이나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에 대한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1950, 1960년 초반에 한국 장로교회는 계속되는 크고 작은 분열을 거듭했다.

1960년대부터는 한국에서 새로운 신학운동 내지 성령운동이 일어났다. 1962년 한국교회에서 토착화신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을 무시하고 한국의 문화와 사상으로 복음을 재해석한다는 의미의 토착화 신학은 결국 불트만의 비신화화와 수직적인 계시 이해를 강조하는 바르트의 신학에서 그 방법론을 따를 수 밖에 없다.[73] 1963년 평신도 신학과 1965년 전국 복음화 열풍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막론하고 불었다.[74] 1960년대 후반 강문교, 서남동, 유동식, 최신덕 등에 의해 세속화

72) 정성구, "한국교회와 칼빈 연구", 총회목회신학원 편,『목사계속교육강의집: 칼빈주의』제5권 (서울: 유니온학술자료원, 1990), 293.

73) 김영재,『한국기독교의 재인식』(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160-61.

74) 이영헌,『한국기독교사』(서울: 컨콜디아사, 1978), 365. 1963년 2월호『기독교사상』지에 "평신도의 자리와 부름"이란 제호로 특집을 냈다. Cf. 유동식, "평신도의 본질",『기독교사상』62 (1963. 2): 27-28; 강원용, "현대교회와 평신도 운동", (1963. 2): 35. 평신도 운동이란 지금까지 "유휴자원으로 있던 평신도의 기동력을 동원하여 교회가 세상 속으로 파고들어가려는 종래의 교역자 중심의 교회 목회와 아울러 각 직장으로 파고들어가는 흩어지는 교회(Diaspora Church)운동"이다.

신학이 논의됐다. 이 신학은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 존 로빈슨(John Robinson), 하비 콕스(Harvey Cox)의 신학에서 시작됐다.[75]

토착화 신학과 세속화 신학은 정치신학과 해방신학을 도입하여 민중신학으로 발전했다. 민중신학은 기독교 복음이 역사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권력층에 억압받아온 민중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발전한 정치신학, 혹은 상황신학이다.[76] 이런 신학이 197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교계에 성령의 운동과 부흥운동, 소위 오순절운동(pentecostal movement)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었다. 방언과 신유, 예언, 이적 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 때 칼빈을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석했다: 보수적인 칼빈 수용(conservate group), 에큐메니칼한 칼빈 수용(ecumenical group)이고, 진보적인 칼빈 수용(progressive group)이다.[77]

1961-1980년까지 칼빈주의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총신대학에서 발행하는『신학지남』총 60편, 합동측으로 넘어온『파수군』(1963-1964) 10편, 고려신학교에서 발행하는『개혁주의』와 기타 학술지에 92편, 기타 학술지에 88편, 석사 학위논문 31편이었다.[78] 이 시기에 단행본은 35권으로 대부분이 번역서이며 국내 학자들의 편저는 11권이었다. 1973년에 비로소 칼빈의『기독교 강요』가 번역되었고, 그의 성경주석은 1980년대 초에 역간되었다. 1970년대 초 칼빈과 칼빈주의에 대한 연구

75) 김영재,『한국기독교의 재인식』, 163-64.
76) 김영재,『한국기독교의 재인식』, 167;『한국교회사』(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4), 373.
77) Ahn, In-Sub, "Calvin in Asia," Herman J. Selderhuis, ed., Trans. Henry J. Baron and Others, *The Calvin Handbook*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9), 517-19; 안인섭, "심창섭 교수의 한국적 칼빈 수용",『신학지남』308 (2011. 9): 44.
78) 필자,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신학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14), 249-55를 참고하라.

를 발표했던 인물은 박윤선, 김의환, 한철하, 신복윤, 이근삼, 이종성 등이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칼빈에 대한 연구는 미미했다. 한국에서 칼빈에 대한 연구는 기장과 통합측이 먼저 시작했다.[79]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발간했던 칼빈의 성경주석 "한국어 번역판 서문"에 이 점이 반영됐다.

> 그러나 칼빈을 사랑하면서도 1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칼빈을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 칼빈 자신의 글이 없었고, 칼빈에 관한 글도, 또한 그것들을 출판하고자 하는 사람도 물론 없었다.[80]

안병무는 "그런 마당에 칼빈 신학이 우리 교회에 침투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비판했다.[81] 한국의 신학을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지만, 연구 없는 신학, 막연한 보수만으로 개혁주의라 하기에는 하나의 선언적 의미로 그친다. 성숙치 못한 개혁주의 신학은 1980, 199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다듬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학문적 발전과 저변화를 가져온다.

5. 합동신학교 설립 이후의 개혁신학(1981-2000)

1) 합동신학교와 개혁신학

1970년대 말 시국과 아울러서 총회신학교 안에서는 내홍이 일어났다. 이어서 1980년 총회신학교에서 분리되어 합동신학교가 설립됐다. 김명혁, 박형용, 신복윤, 윤영탁 등의 교수와 함께 박윤선도 이 신학교를 세우

79) 유해무, "한국에도 개혁신학이 가능한가?" 『개혁신학과 교회』 15 (2003, 8): 183. 칼빈에 관한 연구로 해방 후 첫 단행본은 1959년 전경연이 출판한 『칼빈의 생애와 사상』이다. 이 책은 『십자군』에 1953-1956년까지 연재된 논문을 책으로 출간했다.
80) John Calvin, 『신약성경주석: 히브리서 · 베드로전 · 후서 · 빌레몬 · 골로새』 제10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3), 20.
81) 안병무, "한국의 신학의 현황과 과제: 『신학사상』 간행에 부쳐서", 『신학사상』 1 (1973), 17.

는데 동참했다. 그는 총회신학교에서의 분리에 대하여 '침묵정진'(沈默精進)했다. 홍치모, 이준덕, 김의환 등이 만류했으나 박윤선은 1980년 10월 31일 총신대학교에 신학대학원 원장직의 사표를 제출했다. 그의 소망은 "교단의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학교를 원하는 것"이었다.[82] 합동신학교가 개교한 후 박윤선을 학교장으로 제의되었으며, 그는 수락했다. 총회신학교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83]

합동신학교의 설립 목적은 신학교의 개교 예배 때 네 가지로 천명됐다. "그 동안 타락과 불의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정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권정치로 인하여 나누어진 교회의 연합을 원한다. 또 하나의 교단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총회 안에 머물러서 개혁하려 한다. 그들의 신학적 배경은 한국교회의 전통인 개혁주의이다."[84] 교회 분리의 신학적 정당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가 되면 모교회와 재연합하려 했다.[85] 합동신학교에서는 총회신학교에서의 비행을 개혁하기 위해 학교를 매우 양심적으로 운영했고, 무감독 시험제, 교수와 학생간의 친근함과 학교의 공동설립자로 인식했다. 학생들에 의해 교수평가제가 시행됐다.[86] 이것은 한국 최초의 시행으로 혁신적인 것이었다.

신학교가 분리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는 모임이 일어났다. 교단명은 '개혁'이었다. 1981년 8월10-13일까지 새 교단 조직을 위한 수련회의 주강사는 박윤선이었다. 현 상황에서 합동 교단 안에서 개혁과 일치 운동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불법적이고 교권주의적인 총신 이사회의 간섭을 반대하고 합동신학교를 세운 교수들"을 중심으로 개혁측 총회를 소집한다고 했다.[87] 합동신학교는 "바른 신학, 바

82) 김의환, 서영일과의 면담, 1989년 8월 미국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에서 녹취,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319에서 재인용.
83) 총 7명의 전임교수 중에서 가장 유능한 교수 5명이 총신을 나갔다.
84) "합동신학원, 역사적 개교", 『합동신학보』(1980. 12. 30), 1.
85)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321.
86)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321.
87)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파) 총회소집 선언문", 광고 전단지, 1981. 9. 5, 1,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322에서 재인용.

른 교회, 바른 생활"을 표어로 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나 있는 개혁주의 신학이 자신들의 신학임을 천명했다.[88]

박윤선이 분열주의자라는 비난을 각오하고 이 길을 선택한 것은 한국 교회에 "개혁주의 사상의 부재"와 "부실한 신학 교육" 때문이다.[89] 그는『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주석 정치 · 예배모범』의 '서문'에서 그의 생각을 표출했다.

장로회 정치의 정신은 한 마디로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는 교리이다. 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교회헌법 주석가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이 교리는 16세기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열매이다. 그러므로 교회헌법은 법조문에 지나지 않는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상 지표가 되는 건전한 신학적 표현이기도 하다.[90]

그는『신학정론』에 "교회 개혁의 성업(聖業)과 교리문제"라는 글을 통해 "이 땅에 심어진 개혁주의 교회(혹은 장로교회)가 근년에 이르러 하나님 중심의 공화주의에서 인간의 교권주의로 바뀌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 헌법의 '교회의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란 성경적 헌장은 유야무야(有耶無耶)로 돌아가고, 오늘날 목사의 권리가 교회를 지배하는 경향이 짙어간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방면 개혁은 너무도 절실하다."고 했다.[91]

합동신학교를 시작할 때에 새 교단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교단 설립으로 나가게 된 것은 정부의 '일(一)교단 일(一)신학교 정책' 때문이었다. 교단적 배경이 없는 신학교는 문을 닫아야 했으므로 합동신학교가 합법적인 신학교로 존속키 위해 교단 신설이 불가피했다.[92]

88)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파) 총회소집 선언문", 1, 서영일,『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322에서 재인용.
89) 박성은, "나의 아버지 정암 박윤선", 유영기 편,『그날에 족하니라』(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299.
90) 박윤선,『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주석 정치 · 예배모범』(서울: 영음사, 1991), 5-6.
91) 박윤선, "교회 개혁의 성업(聖業)과 교리문제",『신학정론』2/2 (1984. 11): 202.
92) 유영기 편,『그날에 족하니라』, 40.

1981년 9월 22-24일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파) 총회로 소집되었다.[93] 교단이 형성에 대해『합신 30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30년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자평했다:

신학교가 전제된 교단형성은 다른 교단들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일종의 역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교단은 태동부터 신학교와 뗄 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학교와 교단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동일한 이념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교단은 처음부터 타 교단들과 판이하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출발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단의 시발점은 그 자체가 개혁적이었다. [94]

새 총회는 합동신학원의 인가를 가결했고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 원인이 됐던 WCC와 ICCC와의 교제, 활동 금지를 재확인했다. 개혁교단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이념으로 채택했다. 바른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을 의미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근본원리로 하여 성경의 객관적 권위, 구원의 전적인 은혜성,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관, 그리고 적극적인 문화관과 사회봉사를 그 특징으로 한다."[95]

바른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통치자가 되게 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교권으로 농락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가 배제되어야 하는 교회를 말한다."[96] 이것은 교권에 의한 부조리와 부패를 단호히 거부함을 표출한 것이다.

93) 총회의 회기는 장로교회의 정통성을 따라 66회기로 했다. 목사 회원 41명, 장로 회원 38명으로 합계 79명이 출석했으며, 16개 노회와 200여 교회가 참석했다.
94) 교단역사편찬위원회 편,『합신 30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이야기』(서울: 도서출판 영음사, 2011), 34.
95) 신복윤, "합동신학원의 이념과 진로",『합동신학보』2 (1981. 9. 5), 2.
96) 신복윤, "합동신학원의 이념과 진로", 2,

바른 생활은 네 가지 요소를 지닌다. 바른 신학을 찾아내는 일, 바른 교회관의 재확인, 지방색과 파벌의 근절, 경건생활이다.[97] 이런 표어는 1979, 1980년 합동측과 총회신학교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사문화된 개혁주의가 아니라 삶이 동반된 개혁주의를 지향한다.

개혁주의 정신은 1983년 4월에 창간한『신학정론』의 "우리의 신앙고백"에서 잘 나타난다. 성경관을 서두에 두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본성과 사역, 인간의 창조와 전적 타락, 성령의 사역, 부활과 최후의 심판, 교회와 그 사명, 문화 소명을 언급한다.[98] 전형적인 개혁주의 신앙관을 표현했다. 합동신학교의 존재 이유를 신복윤은 "바로 이 개혁주의 사상의 재확인 운동에 있는 것이다."고 했다.[99] 한국 개혁주의가 근본주의, 세대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일치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본래의 개혁주의 그 자체를 찾아내는 일을 의미한다.[100] 합동 문제가 일어나 1984년 보수측(청담측)과 1987년 합동측과의 논의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박윤선은 1988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제6회 전국교직자 하기수양회를 마지막 집회로 인도하고 6월 30일 오전 6시에 향년 83세의 일기로

97) 신복윤, "합동신학원의 이념과 진로", 2.

98) "우리의 신앙고백",『신학정론』1/1 (1983. 4): 182. 1.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2. 우리는 살아계시며, 주권적이며,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
3.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과 인성,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그리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4.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귀함, 전적 타락, 회심의 필요성, 구속,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칭의를 믿는다.
5.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시며, 중생시키시며, 내주하시며, 성화하시는 사역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음을 효과 있게 증거케 하시며, 책임 있는 봉사를 하게 하시는 사역을 믿는다.
6.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온 인류를 영생의 부활, 혹은 영벌의 부활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7.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인 것을 믿으며, 또한 이 교회의 근본적인 과업이 예배, 복음증거, 성도의 교제, 기도, 봉사, 그리고 선교임을 믿는다.
8. 우리는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현대적 상황하에서 사람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책임임을 믿는다.

99) 신복윤, "한국개혁주의 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신학정론』10/1 (1992. 3): 136.

100) 신복윤, "한국개혁주의 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136.

별세했다. 그는 노년을 편히 지낼 수 있었으나 인생의 황혼기에 교회의 개혁되지 못함과 교권적 정치 때문에 매우 상심한 끝에 신학과 교회 정치에 있어서 개혁을 외치며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는데 동참했다. 이종윤은 박윤선 목사를 "한국이 낳은 진정한 칼빈주의자이다. 옹졸하고 아집에 빠진 폐쇄주의적 신학자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삶을 개혁시켜준 우리 시대의 자랑스러운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아버지다."고 극찬했다.[101] 박형용은 "특히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주석한 그의 주석의 영향이 한국 강단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박윤선 박사는 이처럼 한국 교회의 신학이 칼빈주의에 깊이 뿌리박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이다."라고 평했다.[102]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으나 보수측과 합동을 논의하다가 보수측과 같은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2000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으로 변경했다.

합동신학교는 박윤선과 네 명의 교수들, 신학생들에 의하여 세워진 학교이다. 이 학교가 맹목적으로, 분리주의적인 목적이나 교권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다. 총신대학과 합동측에 모든 과오를 돌릴 수 없지만 1970년대 후반과 1980년 교권이 지나치게 팽배했던 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합동신학교는 박윤선 박사의 마지막 삶의 봉사가 묻어 있는 곳이다. 그 기간은 고려신학교나 총회신학교에 비해 짧았지만 개혁주의를 향한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았다. 지금 이 신학교에서 무감독 시험제를 채택하고, 총회장 출마 선거활동이 없으며, 무지역 노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학교에 교권이 너무 과도하게 미치므로 합동신학교를 총회 직영이 아닌 인준 신학교로 한다. 타 장로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교리는 개혁주의를 지향하지만 생활과 성숙한 신앙의식, 교회정치가 없으면 타락과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 합동신학교를 또 하나의 분리로 볼 수도 있지만 개혁주의의 성숙을 향한 더 깊은 뜻을 새겨야 한다. 지상교

101) 이종윤, "박윤선 신학과 한국교회," 『그날에 족하니라』, 250.
102) 박형용, 『정암 박윤선에게서 배우다』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8), 49.

회는 완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표어를 항상 생각하고 성화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해야 한다.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채택과 신앙고백서들의 출간

이근삼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95개조 선언문으로부터 시작한 신학활동의 대시기를 마무리하는 신학적 작품"이라고 평했다. 종교개혁 이후 125년간의 신학적 노력의 산물이었다. 장로교회의 매우 귀중한 신앙고백서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에서는『소요리문답』외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한국 장로교회는 1907년『소요리문답』을 발간했고, 1908년 12신조와 소요리문답, 교회 정치를 채택하여 사용했고, 1919년부터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교회에 사용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장로교회에서 채택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합동측은 1963년 제48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 · 소요리문답 전체가 교회의 신앙고백이 됐다.[103] 통합측에서 1967년 제52회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첨가하기로 결의하여 1971년 제56회 총회가 공포했고, 제58회 총회에서 결의된 교회 정치 및 권징조례 수정이 통과됐다. 1973년 제58회 총회에서 결의된 교회 정치 및 권징 조례부분 수정안을 각 노회에 수의했던 것이 전문 통과가 되어 1974년 6월 25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수정판을 공포하고 발행했다.[104] 고려파에서 종래의 단일 장로회 총회 헌법을 1957년 9월 20일 제7회 총회가 정치만을 수정 채택했고, 1966년 제16회 총회에서 교단 표준문서 연구 위원을 내고 신경 문제를 재정리하기 시작했다.[105]

---

103) 김길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100년의 회고와 전망",『총회설립 100주년기념 신학정체성 포럼』(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총회설립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2012), 46.
104) 헌법개정위원회 편, "서문",『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교육부, 1974), 3-4.
105) 위원은 이근삼, 오병세, 홍반식, 박손혁, 한학수, 한명동, 서완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분담하여 작업했다.『총회 회록』제10-20회, 151, 154; 허순길,『한국장로교회사』, 483에서 재인용.

1969년 제19회 총회가 새로 번역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본 장로회 신조로 채용하기로 결의했다.[106]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새 교단으로 출발한 1953-1972년까지 새로운 신앙고백서가 공포되기까지 약 20년간 한국장로교회의 옛 신조를 사용했다.[107] 1972년 새로운 신앙고백 선언서를 내놓았다. 합신측은 1987년 제2회 총회에서 예배모범과 권징조례 수정안이 가결되고 대소요리문답과 신조개요서의 수정안도 받기로 가결했다.[108] 1988년 9월 20일 제73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선포했다. 박윤선 목사가 헌법수정을, 신복윤, 오덕교, 김영재 교수 등이 대소요리문답을 번역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개혁주의 신학을 전수하고 장로교의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신조로 채택은 오랜 기간이 걸렸다.

한국 장로교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번역하여 소개한 이는 이근삼이다. 그 후 한국에서 다량의 역서나 해설서가 소개 되었다.[109] 그러나 한국에서는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들인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그리고 소요리문답이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교육되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기형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110] 이 점은 이춘경의 박사학위논문에서도 확인된다. 보수교단에서 임직 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순종한다는 서약을 받고 있으나 그 내용조차 교육받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11]

10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편, 『헌법』 1994년판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94), 5; 『총회 회록』제10-20회, 271,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483에서 재인용.
107)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기독교100년사』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1962), 458.
108) 교단역사편찬위원회 편, 『합신 30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30년 이야기』 (수원: 도서출판 영음사, 2011), 44.
10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해설이나 강해로 번역 저술된 책은 1960년 이전까지 1종, 1961-1980년까지 22종, 1981-2000년까지 38종으로 총 61종이다. 1960년대 이전에는 1권의 책만 저술되었다.
110) James B. Green, *A Harmony of the Westminster Presbyterian Standards*, 김남식 역, "옮긴이의 말",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조해설』 (서울: 성광문화사, 1997), 4.
111) 이춘경, "한국의 현대신학 사조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유용성" (박사학위논문, 페이스신학교, 캘리포니아, 1995), 69-70.

3) 개혁신학 저작들의 다양화

1980년 하반기에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중신학은 그들의 신학적 동력을 잃으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제로 논의하게 된다. 1980-90년대에 나온 칼빈, 칼빈주의에 대한 논문들과 저서들이 봇물을 이루게 된다. 다양한 칼빈에 대한 논문,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개혁주의적 석명을 한 저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다. 이 시기의 문서들을 고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한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기타 대학과 신학교에서 일반 논문, 석 · 박사학위논문 등으로 출간되었다.

1981-2000년까지 고신대학교에서 발간된 학술지들, 『고려신학보』, 『개혁신학과 교회』 등에서 개혁주의에 대한 논문들이 총 74편이 나왔다.[112] 총신대학교는 『논문집』과 『신학지남』 등 여러 학술지에서 총 92편이 발표됐다.[113]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장신논단』, 『교회와 신학』, 『로고스』에 발표된 칼빈과 칼빈주의에 대한 논문은 총 20편에 불과하다.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연구』 및 한신대학의 『논문집』, 『신학사상』을 통해 총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합동신학대학원의 『신학정론』에 실린 칼빈과 개혁주의에 관한 논문은 총 64편이다.[114] 『월간목회』, 『현대사조』, 『월간 현대목회』, 『기독교사상』, 『현대(와) 종교』 등 일반 잡지와 『한국교회사학지』, 『개혁사상』, 『통합연구』등의 각 신학교, 대학교의 교수논문집, 또 대학에서 설립한 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학술지에서 칼빈과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게재한 논문이 총 48편이 된다.[115]

1981-2000년 사이에 총 43개 대학에서 칼빈,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를 소개하는 석 · 박사학위논문이 총 542편이 나왔다.[116] 국내 대학교에서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사람은 이양호이다. 그는 1985년 연

112)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신학에 대한 연구", 〈부록 8〉을 참고하라.
113)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신학에 대한 연구", 〈표 14〉, 〈부록 9〉을 참고하라.
114)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신학에 대한 연구", 〈부록 10〉을 참조하라.
115)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신학에 대한 연구", 〈부록 11〉을 참고하라.
116)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장로교회의 개혁신학에 대한 연구", 〈부록 12〉를 참고하라.

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칼빈의『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관"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수득했다. 1990년 초 외국에서 칼빈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이오갑, 황정욱, 최윤배 등으로 기장이나 통합 소속의 신학자들이었다.[117] 총신대학교는 1990년 후반기에, 고신대학교는 2002년에 처음으로 칼빈을 연구한 박사논문이 나왔다.[118]

이 기간에 칼빈주의에 대한 서적은 총 230종이 출간되었다.[119] 칼빈의 성경주석이 1982년, 1999년에 역간되었고,『기독교 강요』는 1987년과 2000년에 새롭게 역간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출판의 양이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는 약 5배, 두 번째 시기와 세 번째 시기는 수치상으로도 약 8.8배 가까운 급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칼빈의 원저들에 대한 번역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칼빈주의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신학뿐만 아니라 교육, 윤리, 문화, 문명, 음악(찬송), 영성, 전도, 설교, 경제, 사회, 정치, 변증, 철학에서 칼빈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넷째, 칼빈주의에 대한 다양한 책들과 교재가 나왔으나 각 신학교에서 칼빈주의를 강의하는 학교는 적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단점은 있다. 지나치게 외국서적의 번역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총 230종 중에서 외국학자의 서적을 번역한 것이 107종으로 40.9%를 차지한다.

---

117) Lee, Ou-Kab, "L'anthroplogie die Jean Calvin-l'homme dans la tension bi-poaire entre le Deus maiestatis et la le Deus nobiscum" (Facultés de Montpellier et de Paris, 1992); Hwang, Jung-Uk, "Der junge Calvin und seine Psychopannychia" (Wuppertal Theologie Seminary, 1990); Choi, Eun-Bae, "De verhouding tussen pneumatologie en christologie bij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jn" (Zoetermeer: Boekencentrum, 1996).

118) 유해무, "한국에도 개혁신학이 가능한가?" 169-201. 총신대학교에서는 이은선, 강경림이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은선, "칼빈의 신학적 정치윤리" (총신대학교, 1996); 강경림, "칼빈과 니고데모주의" (총신대학교, 1997). 고신대학교 출신 황대우가 화란 아펠도른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Hwang, Dae-Woo, "Het mystieke lichaam van Christus: de ecclesiologie van Martin Bucer en Johannes Calvin" (Apeldoorn, 2002).

119) 상하권, 1-4권으로 된 책을 모두 합치면 297권으로 늘어난다.

4) 개혁신학의 연구기관들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학자들 개인이 학문적 연구와 그 결과물들을 내놓기도 했지만 보다 더 두드러진 특징은 칼빈주의나 개혁주의에 대한 전문 학술단체들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칼빈주의나 개혁주의에 대한 관심과 학술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한국칼빈주의연구원(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기독교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사상연구소, 한국개혁신학회(Korean Reformed Theological Society), 칼빈사상연구소, 개혁주의성경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the Bible and Reformed Theology), 한국칼빈학회(Korea Calvin Society) 등이다.

1980-2000년까지 개혁주의 신학에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다. 개혁주의 내에서의 개혁을 외치므로 합동신학교가 설립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한국 장로교회에서 1960년대, 1970년대에 채택되다가 합신측에서도 1980년대에 채택하였다. 그러나 일부 장로교회에서는 이 고백서 외에 다른 신앙고백서를 채택하므로 정통 개혁주의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신앙고백에 대한 관심은 저술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났다. 개혁주의에 대한 관심은 저서와 역서, 신학대학과 일반 대학에서 학위논문, 각 대학의 학술지, 일반 학술지를 통해서 표출되었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까지 기간과 비교하면 이런 현상은 괄목할 만하다. 또 개혁신학의 학자들의 등장과 연구기관들이 설립되므로 개혁주의를 광포하는데 진일보시켰다.

6. 결론

1930년 이전까지의 한국에서의 신학은 선교사들이 주도한 신학이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는 현대주의의 거센 바람이 불어왔으므로 신학이 거기에 대한 대항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이 영향은 한국에서도 이어졌다.

1884-1930년까지의 신학교육은 평양신학교에서 이루어졌다. 마포삼열, 곽안련, 이눌서 교수 등은 칼빈주의적인 요소를 가진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학에 가깝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의 12신조나 총회의 성격도 철저한 개혁주의 바탕에 선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다. 이 기간 한국에서의 신학을 "매우 강한 칼빈주의적 입장"을 가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120]

1934-1945년은 한국에 칼빈주의가 유입된 기간이다. 한국에 칼빈주의 논문이 『신학지남』에 소개된 것이 1934년 7월이었다. 박윤선은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칼빈주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술회했다. 그가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비로소 칼빈주의에 대하여 견지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는 한국신학의 방향을 개혁주의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후반은 개혁주의가 출현하자마자 신사참배와 일제에 순응적인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 동공화가 된다. 보수주의는 더욱 전투적 성격을 띄게 된다. 한국에 보다 체계적인 칼빈주의를 소개한 선교사는 함일돈이다. 1936년 『게자씨』, 1937년 『신학지남』에 "칼빈주의" 논문을 게재했다. 박형룡이 1937년 뵈트너의 『칼빈주의 예정론』을 번역하여 한국교계에 내놓으므로 보수적 정통주의 신학을 한국에 천착하려고 애를 썼다. 그는 변증학으로 자유주의자 혹은 신정통주의자와 싸워서 정통주의 신학을 보수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영미계통의 청교도적 개혁주의를 선호하고 화란 개혁주의에 대하여는 굳이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121] 한국에서 개혁주의를 전적으로 신봉하고 천착시키는 데는 박윤선의 역할이 더 컸다. 그는 영미 개혁주의를 프린스톤신학교를 통해서 수용했으며

120) 신복윤이 초기부터 1938년까지의 한국 교회의 신학을 평한 말이다. 신복윤, "박형룡 신학의 한국 보수신학사적 의의", 『신학사상』 25 (1979. 6): 221.

121) 박형룡,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174 (1976. 9): 19. 그는 한국 장로교회가 초기에 사용했던 장로교라는 명칭이 개혁주의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주장했다. 개혁주의 문화적 소명을 알리고 전파하는데 부족했고 일반은총에 대한 이해와 문화변혁적 이해를 심어주지 못했다. 또 근본주의를 정통주의 또는 정통파신학과 동일시했으며, 근본주의를 "유일한 기독교 자체"로 정의했다. 박형룡이 메이첸의 주장을 따라 자유주의에 반대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 이상규, 『한국교회의 역사와 신학』, 223, 225; 박형룡, "근본주의", 280-81.

화란 개혁신학을 수용하여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이처럼 개혁주의 신학은 그가 재직했던 고려신학교(1946-1960), 총회신학교(1963-1972, 1979-1980), 합동신학교(1980-1988)를 통해서 확대되어 갔다.

한국에서 개혁주의는 1945-1960년까지 고려신학교를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이 전개되었다. 고려신학교는 신사참배의 원인이 교역자들에게 바른 신학사상을 교육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고, 처음부터 개혁주의 신학을 목표로 했다.[122] 『파수군』을 통해서 개혁주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므로 고려신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구되고 전개된다. 그러나 신학논문과 저서들은 미약하고 저서들은 대개 번역서였다. 1960년 스푸너 사건으로 인해 박윤선은 고려신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1961-1980년까지 개혁주의 확산이 이루어진다. 1963년 박윤선의 총회신학교 행보는 개혁주의 확산을 가져왔다. 1959년 승동측과 연동측과의 분리라는 아픔을 겪었던 직후 고려파와 승동측은 합동의 결실로 맺어졌다. 만 2년이 지나지 않아 고려신학교와 고려파는 환원을 선언하고 말았다. 박윤선은 이런 와중에 총회신학교에 교수하게 됐다. 고려신학교에서 박윤선을 이어 개혁신학에 대한 열정을 이어나간 학자가 이근삼이다. 총회신학교는 신학적으로 보수주의와 복음동지회(NAE)로 반에큐메니칼주의 입장이었다. 신학적 색깔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박윤선으로 말미암아 선명한 개혁주의를 주창했다.

이 시기에 합동교회와 고신교회, 통합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채택했다. 또 한국칼빈신학연구회가 결성되어 칼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으며 개혁주의 논문들과 저서들이 더 많이 출간됐다. 특히 개혁주의 입장에서 쓰여진 박윤선의 성경주석이 1979년에 완간됐고 칼빈의 『기독교강요』가 번역됐다. 동년 총회신학교에서는 주류측과 비주류측이 내홍을 겪어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되고, 1980년 하반기에 합동신학교가 분리된다. 개혁주의 신학적 문제라기보다는 교권주의에 의한 것이다. 개혁주의 정신

122) 이근삼, 『개혁주의 신학과 한국교회』 이근삼전집 2권 (서울: 생명의양식, 2007), 85.

에 위배되는 질서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서가 확산됐다.

1981-2000년까지의 기간은 개혁주의가 더욱 확산, 성숙에 이르는 단계가 됐다. 1980년 박윤선과 뜻을 같이 하는 4명의 교수와 학생들은 총회신학교를 떠나서 새로운 개혁주의의 산실, 합동신학교를 설립했다. 또 하나의 개혁주의 확산이자 교권주의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므로 개혁주의를 향한 열망을 분출했다. 1981년 신군부가 들어서고 신학교정비라는 명령에 의하여 '일교단 일신학교제도'가 추진되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파 교단이 조직되었다. 1988년 박윤선의 소천 이후 신복윤이 계속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쳤다.

신앙고백서에 대한 해설, 강해서들이 쏟아지고 1982년 칼빈의 성경주석이 완역됐다. 교회분열이후 안정을 찾았고 유학갔던 신진학자들의 귀국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신학대학 · 대학원과 일반 대학교에서는 칼빈주의에 대한 연구가 석 · 박사학위 논문으로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박윤선과 직접적인 인과율은 없으나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신학교는 대한기독교장로회의 교단 신학교로 한국신학대학교로 발전했다. 한신대학교는 바르트적 신정통(Noe-Orthodox) 신학과 자유로운 성경비판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과 과격한 신학까지 허용하고 있다.[123] 장로회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직영신학교로써 신학적 폭이 넓어져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포괄하고 있다. 이형기는 장로회신학대학교를 1960년대 초반까지는 총회신학교와 고려신학교와 공통점이 많았으나 1970년대 이후 성경의 역사적, 문헌적 비평과 신정통에 개방적이 됐다고 평가했다.[124]

고려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의 고신대학교와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으로 발전했다. 화란의 캄펜신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화란

123) 이형기, "장로회신학대학의 신학적인 좌표: 역사신학적 입장에서", 『장신논단』 1 (1985): 54-55.
124) 이형기, "장로회신학대학의 신학적인 좌표: 역사신학적 입장에서", 54-55.

의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해 왔다. 김의환은 고려신학대학원이 다소 타 신학교와 교류가 빈약하고 신학 자체도 개방적이지 못하고 발전이 느리다고 평했다.[125]

총회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발전됐다. 박형룡 때는 근본주의적 색채가 강했으나 현재는 복음주의적 신학으로 대세를 이룬다.[126] 총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는 17세기 개혁주의적 정통신학과 미국의 하지, 워필드, 메이첸, 그리고 화란계통의 정통개혁신학의 경향으로 나가게 됐다.[127]

본 논문은 개혁주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칼빈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양극단의 신학교, 신학대학에서 발간된 학술지, 석 · 박사학위논문을 모두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그 주 흐름은 박윤선의 삶의 동선을 따라 정리했다. 박형룡, 박윤선, 이근삼의 활동은 오늘의 한국교회를 칼빈주의 교회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128] 칼빈주의에 입각한 성경관의 확립, 자유주의, 현대주의, 신정통주의의 사상을 비평함으로써 개혁주의를 파지하고 보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129]

앞으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명확한 석명이 이루어져 교계와 다방면으로 광포해야 하며 문화소명을 창달해야 한다. 칼빈의 원전 연구를 통하여 학문의 증진을 이루고 삶의 성화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사회영역에 확장해야 하며 연합의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 장로교회 안에 개혁주의가 더 확고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125) 김의환, “한국 신학교의 역사와 신학의 흐름”, 『개혁신학』 3 (2002. 5): 11.
126) 김의환, “한국 신학교의 역사와 신학의 흐름”, 11.
127) 이형기, “장로회신학대학의 신학적인 좌표: 역사신학적 입장에서”, 54.
128) 이상규, “한국교회에 나타난 칼빈 신학의 흐름을 생각한다”, 『목회와 신학』 87 (1996. 9): 69.
129) 박영희, “한국의 주경신학과 박윤선 성경주석의 의의”, 『신학지남』 206 (1985. 9): 92.

참고도서

개혁주의신행협회30년사 편찬위원회 편, 『개혁주의신행협회 30년사: 1957–1986』,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7.
곽안련,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교단역사편찬위원회 편, 『합신 30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영음사, 2011.
김광수, 안광국 공편, 『장로회신학대학 70년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971.
김남식, 간하배 공저, 『한국장로교회 신학사상사』,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1997.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서울: 총회교육부, 1956.
김영재, 『박윤선: 경건과 쇄신을 추구한 개혁신학자』, 파주: 살림출판사, 2007.
_____, 『한국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4.
_____, 『한국기독교의 재인식』,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김요나, 『총신 90년사』, 서울: 도서출판 양문, 1991.
김인수, 『레널즈가 한국장로교 선교 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끼친 영향 연구』, 서울: 한들출판사, 201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장로교사(고신): 1988』, 부산: 고신출판사, 1988.
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6.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_____,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주석 정치 · 예배모범』, 서울: 영음사, 1991.
박형룡, 정성구 편, 『박형룡박사 회고록』,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1.
_____, 『박형룡박사저작전집: 변증학』 제11권,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박형용, 『정암 박윤선에게서 배우다』,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8.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양낙흥,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오병세, 『교회 교육 신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9.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한국신학사상사 서설』, 서울: 전망사, 1984.
이근삼, 『개혁주의 신학과 한국교회』 이근삼전집 2권, 서울: 생명의양식, 2007.
이상규, 『한국교회역사와 신학』, 서울: 생명의양식, 2007.
_____, 『한상동과 그의 시대』, 서울: SFC출판부, 2006.

이영헌,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1978.
정성구, 『박형룡 · 박윤선』, 대구: 도서출판 한빛, 2006.
조경현, 『초기한국장로교 신학사상』,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2011.
총신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총신대학교100년사』 제1권, 서울: 총신대학교, 2003.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 대설교전집 출판위원회 편, 『대설교전집』 Ⅰ, 서울: 박문출판사, 1995.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기독교100년사』,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1962.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2002.
헌법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교육부, 1974.

Charles Allen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Illustrated in Korea*, 박용규, 김춘섭 공역,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James B. Green, *A Harmony of the Westminster Presbyterian Standards*, 김남식 역,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조해설』, 서울: 성광문화사, 1997.

강태민, "요한 갈빈의 생애(1)", 『종교시보』 4/4 (1935. 4): 15–17.
"교계소식", 『파수군』 125 (1962. 12): 69–70.
김길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학100년의 회고와 전망", 『총회설립 100주년기념 신학정체성 포럼』,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총회설립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2012.
김영재, "초기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 교육", 『기독신학저널』 13 (2007년 가을호): 41–58.
김의환, "한국 신학교의 역사와 신학의 흐름", 『개혁신학』 3 (2002. 5): 1–12.
남궁혁, "칼빈 신학과 현대 생활", 『신학지남』 76 (1934. 7): 2–13.
박경수, "한국칼빈학회 약사",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 신학 개요』,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박성은, "나의 아버지 정암 박윤선", 유영기 편, 『그날에 족하니라』, 수원: 합신대학

원출판부, 2009.
박손혁, “신학10년 발전사”, 『파수군』 55 (1956. 9): 18–22.
박영희, “한국의 주경신학과 박윤선 성경주석의 의의”, 『신학지남』 206 (1985. 9): 62–93.
박용규, “한국교회와 정암 박윤선 박사의 역사적 의의”, 『죽산 박형룡과 정암 박윤선: 제17회 정암신학강좌』, 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5.
박윤선, “교회 개혁의 성업(聖業)과 교리문제”, 『신학정론』 2/2 (1984. 11): 202–3.
_____, “나의 신학과 설교”, 『신학정론』 4/1 (1986. 5): 4–32.
_____, “우리의 주장”, 『파수군』 7 (1951. 7): 5–6.
박형룡, “속간사”, 『신학지남』 114 (1954. 2): 1–2.
_____,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174 (1976. 9): 11–22.
신복윤, “박형룡 신학의 한국 보수신학사적 의의”, 『신학사상』 25 (1979. 6): 221–40.
_____, “한국개혁주의 신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신학정론』 10/1 (1992. 3): 115–42.
안병무, “한국의 신학의 현황과 과제: 『신학사상』 간행에 부쳐서”, 『신학사상』 1 (1973): 9–27.
안인섭, “심창섭 교수의 한국적 칼빈 수용”, 『신학지남』 308 (2011. 9): 42–58.
오병세, “박윤선 신학이 한국 주경신학에 미친 영향”, 합동신학교출판부 편,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수원: 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우리의 신앙고백”, 『신학정론』 1/1 (1983. 4): 182.
유해무, “한국에도 개혁신학이 가능한가?” 『개혁신학과 교회』 15 (2003. 8): 183.
이눌서, “근대신학주의는 즉 배도하는 일”, 『신학지남』 66 (1932. 11): 6–11.
_____, “신앙의 원리”, 『신학지남』 14 (1922. 1): 12–20.
_____, “칼빈 신학과 그 감화”, 『신학지남』 76 (1934. 7): 49–54.
이상규, “한국에서의 칼빈 연구”, 오정호외 7인 공저, 『칼빈과 한국교회』,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_____,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 『역사신학논총』 창간호 (1999. 11): 387–424.
_____, “한국교회에 나타난 칼빈 신학의 흐름을 생각한다”, 『목회와 신학』 87 (1996. 9): 62–70.
이종윤, “박윤선 신학과 한국교회,” 『그날에 족하니라』,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장희종, “초기 『파수군』을 통해서 본 우리 교회의 정신”, 『장로교회와 역사』 1 (2008): 36-42.
전광식, “오병세의 신학”, 오병세목사성역50주년기념문집간행위원회 편, 『새벽이슬같은 은총의 날들』, 부산: 오병세목사성역50주년기념문집간행위원회, 2001.
정성구, “한국교회와 칼빈 연구”, 『신학지남』 223 (1990, 3): 12-31.
_____, “한국교회와 칼빈 연구”, 총회목회신학원 편, 『목사계속교육강의집: 칼빈주의』 제5권, 서울: 유니온학술자료원, 1990.
최석진, “개혁주의신행협회”, 오병세목사성역50주년기념문집간행위원회 편, 『새벽이슬같은 은총의 날들』, 부산: 오병세목사성역50주년기념문집간행위원회, 2001.
허순길, “『파수군』 영인본을 펴내게 됨을 축하하면서”, 『파수군』 영인본, 서울: 도서출판 목양, 1990.

George Thompson Brown, *Mission to Korea*,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62.
Ahn, In-Sub, “Calvin in Asia,” Herman J. Selderhuis, ed., Trans. Henry J. Baron and Others, *The Calvin Handbook*,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9.
Morton H. Smith, “The Southern Reformed Tradition,” ed., David F. Wells, *Reformed Theology in America*,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1997.

Bruce F. Hunt, “Trials Within and Without,” *The Presbyterian Guardian* 29 (February 1960): 37-40.
Harvie M. Conn, “Korean Theology-Where it has been? Where is it coming?” 『신학지남』 157 (1972. 6): 52-82.
_____, “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n Historical Outline Part Ⅱ,”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29/2 (May, 1967): 136-78.

이춘경, “한국의 현대신학 사조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유용성”, 박사학위논문, 페이스신학교, 캘리포니아, 1995.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9)”, 『크리스챤신문』 945 (1980. 5. 17).
신복윤, “합동신학원의 이념과 진로”, 『합동신학보』 2 (1981. 9. 5).
“기독교의 위인전: 불란서의 종교개혁가 쓴 칼빈”, 『기독신보』 400 (1923. 8. 8); 401 (1923. 8. 15).
채기은, “성경주석 완간을 축하함”, 『기독신보』 332 (1979. 10 29).
“합동신학원, 역사적 개교”, 『합동신학보』 (1980. 12. 30).